**30세 미만**

**순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평균 159%에 육박 하며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그룹이다.**

**생애 주기상 자산이 형성되기 전 신용 및 담보 대출의 용도는 거주주택 구입 목적 보다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. 또한 금융 자산의 항목에서 전 월세 비중 실물 자산은 자동차 금액의 비중(56%) 권리금 또한 타 그룹(~500%~)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(1280%)에 있으며, 담보 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 일시 상환이 50%에 육박하여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.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로 소비 지출 중 주거비용의 비중(20%)**

**이 타 그룹대비 가장 높다.**

**30~40세 미만**

**순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평균 100%에 육박 하며 두번째로 높은 그룹이다.**

**거주 주택 구입 금액과 자동차 금액(35%)이 실물자산(41%)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자산의 경우 여전히 전월세의 비중(33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.**

**생애 주기 상 거주주택 구입 목적을 위한 신용(9.7%) 및 담보 대출(51%) 비중이 타 연령대비 가장 높고 여전히 전월세 보증금 마련 비중(신용 14%, 담보 31.6%)이 큰것을 확인할수 있다.**

**40~50세 미만**

**순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평균 3%이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.**

**담보대출 금액중 거주주택구입 금액 비중(58%)이 가장 높으며 신용 대출 금액은 생애 주기상 가장 소비지출(44%)이 많은 계층이며 교육비, 보육료(14%) 지출이 타 그룹대비 가장 높다.**

**50~60세 미만**

**순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평균 35%이며 두번째로 낮은 그룹에 속한다.**

**생애 주기상 신용대출에서 소비지출 명목의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은퇴 이후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 비중(24%)이 높아진다. 일부 자산가 계층은 축적된 자산을 활용한 투자목적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.**

**대출 기관의 변화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(13%)이 높아지며 이는 이미 상당수의 개인은 높은 부채 비율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신용대출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비율(36.8%)이 높은것을 미루어 볼때 일정한 수득의 부재로 현금흐름이 안정되지 않음을 추정할수 있다.**

**60세 이상**

**순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평균 81%이며 두번째로 높은 그룹에 속한다.**

**사업자금 명목 비중이 가장 높다 은퇴 이후 상당수의 인원이 자영업을 하는것으로 추정된다.**

**축적된 자산을 활용한 투자목적 주택 금액이 늘어나지만. 이와 더불어 현금흐름이 확보 되지않아 생활비 명목 대출을 받는 엇갈린 통계치를 확인 할 수 있다. 추가적으로 17%의 두번째로 높은 주거 비용 지출은 60대이상 연령층의 높은 빈부격차를 추정해 볼수 있다.**

**지출이 낮음에도 금융 비용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(24%)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비중(40%)이 높으며 예적금의 비중(61%)이 높다는것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비용은 높지만 유동성이 높은 자산 혹은 부채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을 알수 있다.**